



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8년 9월 29일 (화) 제722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필 편집인장 주간 고영훈 편집장 박윤정 인쇄인 홍준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0(국)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06 FAX 961-4183 (음인) 0335-30-4112 서울시 중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오현면 용산리 산 89

양배움터 정기학생총회 개최

서울,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용인, 내일(30일) 열려

서울 서울배움터 98년 하반기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지난 24일(목) 대학원건물 311호에서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는 재학대원 171명 중 위원의 대의원의 참석으로, 예정보다 2시간 늦은 8시 30분에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칙개정안 △인준안 △사업 및 결산 보고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하반기 학자투쟁 및 9.30동맹휴업 결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칙개정안만 통과됐다. 회칙개정안이 통과된 후 참석자 대의원의 수가 재학대원 171인 1/2인 의사진작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에, 그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며칠간의 휴회를 선포한 뒤 오는 29일(화)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며칠간의 휴회기간을 가진 뒤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지난 95년 전학대회가 처음 열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회칙개정안은 당초 총학생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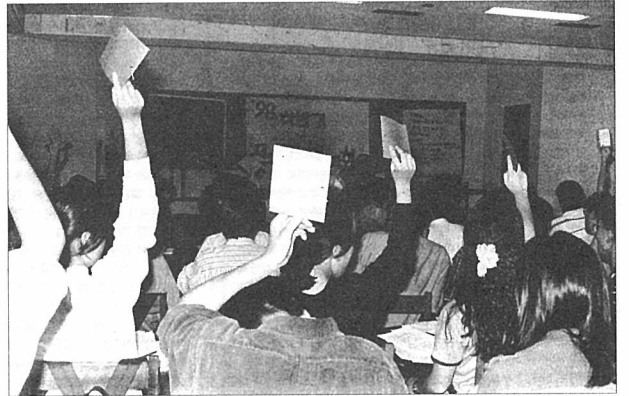
학생회 기구혁신·운영혁신·선거시행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제안한 원안에 대해 일부수정을 가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됐다(본보 721호 참고). 기구혁신에서는 원안에 △학대운영 권한 강화 △감사대상 자치기구에 교직원집회위원회 포함 등의 내용이 첨가 또는 수정된 수정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리고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총장 면담결과, 학교 구조조정안에 대한 입장, 학원자주와 투쟁과 관련한 총학생회 요구안 등이 보고안건으로 처리됐다. 서울배움터 정기학생총회가 어제(28일)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날 행사는 학생참여를 기다리며 90여분간이나 지연됐으나 결국 350여명만이 참여해 정족수인 전체의 1/10(7000여명)에 미달했다. 이날 행사는 비록 안전은 통과시키지 못했으나 집회 시간을 통해 활동과

소고춤, 영상자료 등을 선보이며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함께 9.30동맹휴업을 결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오승훈(상경·경영 4)은 결의발언을 통해 "1학기 투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다시 모이게 되어 기쁘다. 이런 분위기가 2학기 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며 "2학기 학생회사업이 많은 학우들의 참여 속에서 잘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용인 용인배움터 19대 총학생회 8차 학대운영위원회(학대운영위)가 지난 21일(월) 운영위원 58명중 30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넘는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열린 학대운영위에서는 △학원자주 화운동 교양 △학자투쟁보고 및 토론회 △새민정 보고 △2학기 사업 계획서 토론 및 의결 △의결권 있는

대학원위 건설을 위한 7천여원 서명운동" △정기학생총회 안전 상황 및 행사 결의 △가을농활 대중적 행사를 위한 특별 결의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용인배움터 19대 총학생회는 오는 30일(수) 6시 노천극장에서 2학기 양산 정기학생총회(정총)를 개최한다. 총학생회는 2학기 정기학생총회를 통해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쌓고 단결을 높이고 학원자주투쟁 2대 요구안(대학운영위 건설, 외대발전 방안 마련) 합의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학기 사업보고 및 결산, 2학기 예산 인준 △2학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 △총회 폐회 등의 순서로 열릴 예정이다.

박윤정·우혜나 기자



서울배움터 전학대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휴회를 선포하고 연기했다. 지난 24일(목) 98년 2학기 전학대회가 개최는 됐지만, 결국 선거 시정세력 분리가 끝났을 시 참치 대학원 수가 재학대원 171인 1/2인 의사진작수에 미치지 못해 휴회를 선포하고 오늘 29일(화)로 연기했다. 학생회 내부조직 혁신과 2학기 투쟁방향을 합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대의원들의 불참하는 것은 아쉬움을 남겼다.

임승희 기자

한총련, 내일 동맹휴업

실업문제, 학부제 철폐 목표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오는 30일(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IMF 재협상, 미국의 교육개방방조지, 학부제 완전철폐를 위한 9·30 한총련 동맹휴업(9·30 동맹휴업)'을 실시한다. 이번 9·30 동맹휴업은 더 이상 실업 문제가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정부측에 근본적인 실업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정례하고 도입을 강요한 IMF 협약에 대해 공정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학부제 역시 2000년 교육개방을 앞두고 우리 대학을 쉽게 인수하기 위한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분석하에, 이번 9·30 동맹휴업을 통해 학부제 도입과 교육시장개방 저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서는 IMF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비 환수를 통한 경제난 해소 및 실업기조 조성 등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6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어 서명운

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차원의 적극적인 실업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총장직속의 취업대책위원회를 학교, 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여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이번 9·30 동맹휴업을 '9·30 총궐기'로 변경, 진행하기로 했다. 용인배움터에서는 9·30 동맹휴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오는 30일(수)에 있을 정기총회 자리에서 고하철(인문·언어4, 재직) 총학생회장의 정치연설 등을 통해 9·30 동맹휴업의 내용을 알릴 것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사취부

임 본보에서는 원고 9인 만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화부기자를 모집합니다. 만화에 재능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용인공청회 오늘(29일)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및 역할 논의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학원의 민주적 운영과 대학운영위원회 월례공청회'를 오늘(29일) 도서관 4층 세미나실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대학운영위원회'에 대한 용인 7천 학생들과 함께 논의한다. 총학생회 학원자주투쟁특별위원회(학자투위)와 언론협의회의 주관하에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학생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대학운영위' 건설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발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학운영위'와 관련 언론협의회의 집행권장 신동원(통구·한글리 3)군은 "학교운영과 관련한 모든 운영사항을 재단이사장, 총장 등에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비리정권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며 "가장 민주적으로, 즉 모든 학원의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학교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청회에 대해 총학생회 학원자주투쟁특별위원회(학자투위)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대학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학우들과 논의할 통해 삼을 잡을 것이다"며 "정말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여 용인의 주인이, 외대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월례공청회는 중간고사 다음 주 '외대와 왕산 발전의 장기적 전망'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명재경 기자

임 이번기 신문 중단
학보사 내부시정으로 인해 722호 이후 723호 발행을 중단합니다. 이번호를 끝으로 신민기 신문은 종간하고, 다음호는 723호는 724호 12월호로 발행합니다. 723호는 주선위원회 종간고시관계로 724호로 발행합니다.

외대학보



추석이 슬픈 사람들

▲이번 주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뜬다. 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수업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일에 몰두하기조차 힘든 세상이긴하지만 정성스레 정한 음식과 얼얼조각 가래거리는 가족을 만나는 것만으로 현재의 힘들마져 잠시나마 잊힐 것 같다. ▲하지만 추석에 또 하나의 건기가 어려운 '힘들'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삶은 이렇다.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다가서는 열사람을 경계한다. 순대국밥을 먹다가도 막 들어와 옆에 앉는 사람을 의심한다. 마음 편히 친구를 기다릴 수도 없다. 먼저 뒤를 살피고 어디로 어떻게 재빨리 이동할까 고민한다. 바로 수배자들이다. 그들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목숨을 빼앗아 하는 등 타인의 행복을 해한 범죄자는 아니다. 오히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고지거리에서 데모를 했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타인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 남들과 조금 달랐을 뿐이다. 학교 비리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했고, 정권의 치부를 보고 정치인들처럼 흥정하거나 아파하지도 않았으며, '이놈에 세상 그날 뭘때로'라는 식으로 체념하지 않았다. 옳은 것에 과감히 나섰다. 때로는

정권을 상대로 하기도 했다. 그래서 수배자라는 딱지를 가슴에 달았다. ▲그들은 추사에 집에 가지 못한다. 올케와 몇 해 전 지 헤아리는 이들도 있었고, 올케 들어 새로 수배자라는 딱지를 달고 외로운 추사의 첫 해를 맞는 이도 있을 것이다. 추사에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TV속의 흥겨움을 자신의 흥겨움으로 포장하며 받아들이며 하며, 리본에 감지로 추사 아침 밥상을 차려야 한다. 안부전화를 걸면 서 눈물조차 한껏 흘릴 수 없다. ▲아직도 감옥에는 400명이 넘는 양심수가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대학생 구속자 261명에 달한다. 김정삼 정권 초기인 93년에 구속된 양심수가 135명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인의 정부'에도 학생은 국민이 아닌 듯 싶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통일과 애국, 정의를 예기하는 이들에게 수배와 구속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수배자가 없는 나라, 양심수가 없는 나라, 아직도 아득한 꿈처럼 느껴진다. 추석 때 집에 오는 수배자들을 집중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라는 얼마전의 신문 기사가 생각난다.

사취부장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일이 빨간색이네?”

30

우리는 모두 '예비 실업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직장에 있던 사람도 쫓겨나가는 판국에,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은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MF의 무리한 구조조정은 실업의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전국대학생 80%이상이 학부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의 교육개편으로 교육시장개방을 용이하게 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 학부제 시행입니다.

9월 30일(수)에는 '실업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IMF재협상! 미국의 교육개방 멈추라!' 학부제 완전철폐를 위한 한총련 동맹휴업이 있습니다.

민족자주연
외대학보

서울 전학대회 평가

혁신의지, 준비부족으로 주춤

사상최초 휴회... 내일(29일) 2차 전학대회 개최

이런 전학대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지난 학기 사상초유의 학원자주투쟁을 벌였던 학생회가 내부조직을 정비·강화하고 2학기 투쟁의 방향을 합의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만큼 어느때보다 내실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 전학대회가 각 학년 대표자회를 포괄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형식상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사실은 총학생회가 제안한 회칙개정안을 이유를 살펴봐도 명확히 드러난다. 총학생회는 전학대회 자료집을 통해 "32대 총학생회는 학생회라는 대중조직을 대중조직답게 만들기 위해, 학생대중이 주인으로 만들어 가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생회 혁신을 고민했고 그 구체적인 과제로 기구혁신, 운영혁신, 선거제개혁을 제언하는 바이다"라고 밝히 전학대회 자료를 학생회 혁신을 위한 논의와 결의의 자료가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학대회 역시 매년 지적되어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년 지적 받아온 것도 매년 혁신되지 않는 안전 배의 문제, 즉 사전준비 미비라는 문제이다. 회칙상 전학대회 소집 3일전에 목적사항을 공고하도록 돼있고 총학생회가 안전을 대자료를 통해 공고하기도 했다. 또, 중앙운영위원회나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회칙 개정에 대한 언급을 이어온 바 있다. 그러나 전학대회의 자리에 참석한 대표자들의 안전, 특히 회칙개정에 대한 이해도는 그리 높지 못했다. 대부분은 사전에 안전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학대회 안전 내용을 담은 자료집이 9월 4일 4개 학사 배로만 열람되었다.

총학생회의 대표자들에게 안전을 숙지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했지만 단과대 학생회장들이나 과학생회장들이 단위의 대표자들에게 안전을 알리고 단위에서 책임지는 토론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 자연 전

학대회 자리에서 벌어진 토론의 수준도 높지 못했다. 회칙개정에 대한 토론보다는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었던 것이 일례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전학대회가 안전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의견도 있다. 회칙개정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고 전체적인 찬반 토론만 짧게 진행되는 바람에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와 더불어 대표자들의 안전한 모습 또한 치열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지 못하게 한 요인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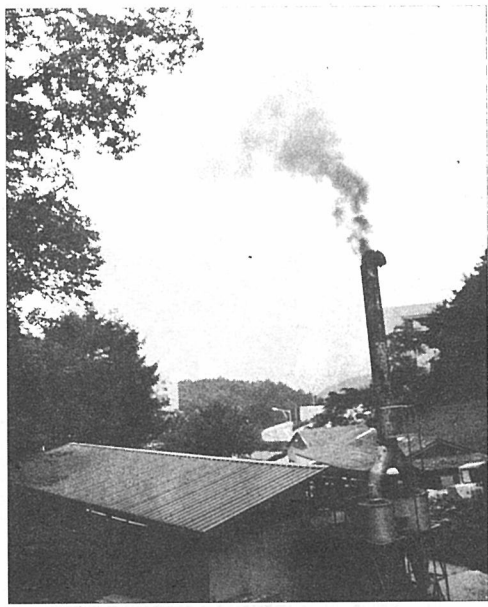
또 이번 전학대회는 사상 최초로 휴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이 끝난 후 참정대의원의 수를 세 본 결과 의지정족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사를 미리 했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일찍 빠져 나간 것이라는 우스개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표자들의

만성적 책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중앙집행국장 김병석(동양·타이어 4)은 "지금까지 2학기 전학대회가 끝까지 성사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번 전학대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대표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총학생회장 오승훈(상경·경영 4)은 "선거시행세칙, 기구혁신 등 학생회 혁신에 관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휴회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어제(28일) 정기총회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하게 성사되지 못한 전학대회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대표자들이 내일(29일) 있을 2차 하반기 전학대회에서는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할지 기대한다.

박윤정 기자



콜록콜록

음민배출터 경성대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다. 쓰레기가 불연연 연소돼 시베리아는 일산소각장 허공이 온기를 잃어가고 있다. 소각장에는 대한 정부차원의 정화규제가 없는 현실이지만, 환경과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각후 배출되는 가스를 정화시킬 수 있는 집진기가 설치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글: 임승희 기자
사진: 김성민 기자

서울총학, 총장과 '상설위' 등 논의

상설위 위상이 쟁점, 그외 복지 사안도 언급

서울배출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수) 총장 및 처장단과 면담을 가지고 학교발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오늘(29일) 실무단위인 기획조정처와의 면담자리에서는 가칭 상설위원회의 위상과 단기 복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장 및 처장단 자리에서는 조규철 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발전계획을 먼저 밝힌 후 오승훈(상경·경영 4) 서울배출터 총학생회장이 요구안을 설명,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총장이 밝힌 학교발전 계획으로는 △서울은 외국어 중심, 용인은 외국어중심도시 발전 △서울을 외국어 종합터 등 설립 △학생회관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작곡동 이전 내내 초기 불기능 시 시문물 발전계획 수립 △입기내 B학정 이상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이 있으나 학생들은 실현 가능성 여부와 외국어 도입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 총학생회가 요구한 내용은 크게 △과거 비리사건 처벌 △상설위원회의 건립 △작곡동 그린벨트 해제 추진 △학교차원의 신입대행 마련 등이며 그 외 단기 학정 복지안도 요구했다. 이 중 대부분은 합의가 됐으나 상설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대학당국과 학생측의 안이 미흡을 보이고 있다. 가칭 상설위원회의 "총장을 위원장으로 노동선 이사,

교수 2인, 직원 2인(학생측은 직원 1인)에 대학원 대표 1인 요구. 학생 2인, 동문 2인, 대학당국 2인(처장단 2명) 정도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학당국측은 양 배출터 부총장직 참여도 요구하고 있다. 합의한 상설위원회의 위상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의결하는 기구'인데 대학당국측은 발전계획 회의 부분, 즉 등록금 결정이나 학제개편 등에 관해서는 기구에서 논의해서 인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당국의 고유한 행정적 권한이라는 것이 명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29일) 기획조정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박윤정 기자



시립대학 재정실태 분석 - ① 이월·적립금이 넘쳐난다

돈 없다 예산삭감, 뒤로는 따주머니

지난 23일(수)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에 따르면 98년 2월 현재 전국 시립대가 보유한 이월·적립금은 모두 2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IMF 한파와 등록금 동결로 대학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교직원 채우 축소와 장학금 등 학생지원 경비에 채워 삭감했던 시립대학의 주머니가 텅텅 비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설문 의원 19 회계년도 시립대학 결산 재정분석 통계 처리 집계표 분석,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하면서 밝혀졌는데, 자료에 따르면 정리하면 120억이나 되는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적립금 대학 당국은 학생들의 후자요구에 '돈이 없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본보는 설문 의원들의 분석한 자료와 지난 7월(월) 대학당국이 본보 71호를 통해 공개한 이번 및 학교교육에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해 3회에 걸쳐 실기로 했다. 이번 호에는 전국 시립대학들의 이월·적립금 실태와 우리 학교 상황을 중심으로 다룬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시립대학들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은 총 2조 3,327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이월여액은 2,680억 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덕성여대(1,580억), 한양대(1,500억), 경성여대(1,300억), 연세대(1,294억) 등도 1천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려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500억~1,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00억~500억원을 보유한 대학도 23개 대학이나 되었다.

조사대상 51개 대학은 최소한 100억원 이상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6억원을 보유한 우리대학은 전국 평균 수준인 셈이다.

이월·적립금은 대학이나 법인이 등록금 등과 같은 예산을 그 해에 사용하지 않고, 반박·반공 이월로기 주입식 통일교육을 시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통일교육'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인인 북한에 대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하여 통일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도 이 통일교육이 제대로 해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IMF가 침투한 이후,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도, 공안정국이 불안정한 것도 모든 원인이 분단구조에 있으므로 이를 청산하기 위한 대북 인식교육이 시급해진다.

'기금 적립금·유동부채'로 계산되든 금액이다. 이월·적립금을 증시수되는 것은 IMF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분담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대학은 과연 어느정도의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가 라는 점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다. 유동부채인 현금, 예금 등 비교적 짧은 기간(1년)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단기대여금이나 선금(물품 등 용역 구입비용 등의 선지급액) 등도 이에 포함된다. 특정기금 적립금이란 연구·건축·장학·복지 적립기금 등 별도로 적립되는 기금을 뜻하는 것이다.

이 들을 더한 것에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의 묶음을 빼면 이번 회계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액수에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합쳐진 이월·적립금이 산출된다.

물론 이 이월적립금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월적립금 중에서도 학교회계의 비

율이 높다는 것인데 '이월적립금' 대비 학교회계 비율이 가장 높은 나사렛대의 경우 400%에 육박한다. 학교회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월적립금을 학교운영을 위해 주로 쓰이는 학교회계에서 배 갈라서 주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학교회계에서 대부분의 수입원은 학생 등록금이다.

다른 대학에 비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액수의 이월적립금이지만 외국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상 대학당국과 법인이 이월적립금을 만드는 것에만 열중한다면 학생들의 비판을 받을 여지를 남겨 놓는다.

또한 앞으로 외대발원인을 고민해야 할 법인과 대학당국 등은 이월적립금을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할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박윤정 기자

통일시대, 통일교육 2 - 통일문제연구 강의하는 이장희(국제법)교수를 만나

“분단 극복위해 대북관 바꾸는 교육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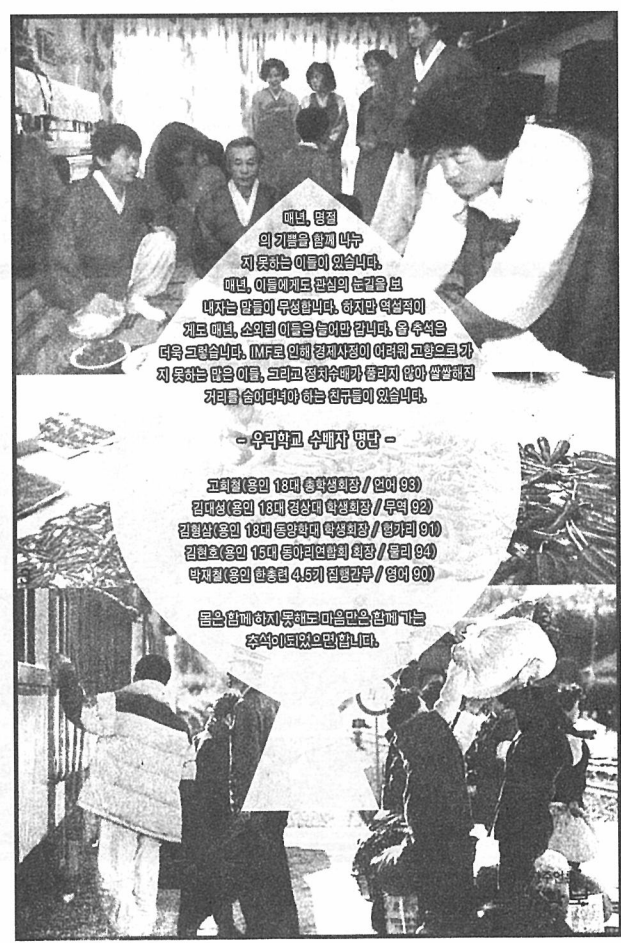
통일문제연구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의 통일방향이 항상 정부 중심으로만 진행돼 왔으나, 민간에서 연구하는 통일방향이 전혀 소외되지 않았고, 반박·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통일교육만 진행됐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잘못 돼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을 완성할 세대인 우리 학생들의 통일의 지평을 넓이기 위해 이 수업을 맡게 되었다.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어떠한가 생각하기 위해 설명했지만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해 민간단체들의 활동보장을 하지 않고, 반박·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식 통일교육을 시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통일교육'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인인 북한에 대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하여 통일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도 이 통일교육이 제대로 해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IMF가 침투한 이후,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도, 공안정국이 불안정한 것도 모든 원인이 분단구조에 있으므로 이를 청산하기 위한 대북 인식교육이 시급해진다.

외대의 통일교육은 어떠한가 생각하기 위해 설명했지만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해 민간단체들의 활동보장을 하지 않고, 반박·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식 통일교육을 시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통일교육'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인인 북한에 대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하여 통일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도 이 통일교육이 제대로 해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IMF가 침투한 이후,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도, 공안정국이 불안정한 것도 모든 원인이 분단구조에 있으므로 이를 청산하기 위한 대북 인식교육이 시급해진다.

우리나라 통일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정부는 통일외교 정책은 제대로 전환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



- 우리학교 수배자 명단 -

- 고희철(월인 18대 총학생회장 / 연대 98)
- 김대성(월인 18대 경성대 학생회장 / 무학 92)
- 김철환(월인 18대 동양학대 학생회장 / 명지 90)
- 김현호(월인 15대 동아연합회 회장 / 동리 94)
- 박재철(월인 안순원 4.6제 집행장부 / 영명 90)

몸은 함께 하지 못해도 마음은 함께 하는 주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 성장제일주의,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1. 문제제기
2. 경제성장의 원상 ① 경제성장이 만민의 부(富)를 보장할 수 있는가
3. 경제성장의 원상 ② 세계경제질서 내에서 경제성장을 목표로邁進한 한국이 경제대국 될 수 있는가
4. 경제성장의 원상 ③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자유시장이테올로지의 절정, 세파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5.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삶의 위기를 진정으로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식의 패러다임을 채택하는 것이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의 부인과 아이들이 공권력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정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수십억의 사람들과 부와 사치스러움을 뒤에 감추고 살아가는 극소수 엘리트들로 나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100만이 조금 더 되는 사람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몰아주기 위해 인간의 문명과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대담하게도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경제 세계화의 대가로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 600년에 달하는 실업자,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노숙자, 70%이상 증가한 휴학생, 6개월 사이 1만명 이상 급증한 경제사범, 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30명이라면 충분하지 않은가? 위극국 북의 대안은 사회경제적응에서 찾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으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위기극복방안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

세계는 현재의 위기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무능력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주장해온 대로 '시장자유주의'에 따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장에 내맡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는 볼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가 심대한 위기에 빠져있고 시장경제라는 시장경제가 성립되어 있지않은 조건 속에서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지닌 자유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가져온 주범인 재계와 정부가 추구하는 위기해결책은 결국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방법으로서, 위기를 극복하기는 커녕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현재 담판하고있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직시한다면 곧바로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주류경제학자들은, 서울시장에 강철규 교

수와 같이 위기탈출의 제 1의 과제로 '대외신도화'를 들면서 금융기계의 자율화, 재벌의 투명화 경영, 정부주도 아닌 시장경제원리 정착,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혹은 고려대 정하성 교수와 같이 재벌개혁은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하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피해를 완화하는 사후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입장 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단체의 위기극복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들이 국가로부터 자신들의 독립성 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과 자본의 논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자신을 진보세력이라 자처하는 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실진국립 자본주의' 모델을 한국자본주의의 재편의 식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상조 교수를 위시한 이들은 대체로 한국 독점재벌 지배체제가 지닌 친인성과 관주도형 경제체제 및 정경유착과 같은 한국적 발전모델에서 지닌 고유한 문제점들이 위기를 만든 주범이라고 보면서 소수의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체제의 수립, 국민주의 보급과 종업원자주제의 도입 등을 통한 국민기업화, 종업원이사제의 도입, 노동자들의 경영참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기업이나 종업원 주주제 기업은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선진자본주의체제 전환에서 대거 존재하는 기업형태이며 자본주의의 2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번도 그 위치가 성공한 적이 없었다. 이 점에서 그러한 방향에서의 재벌해체만 결코 사회와 방한에서의 진보적 재벌해체, 즉 독점자본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자본주의의 기형적 형태의 재가면만 기어올라 따른다.

또한 한국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선진국립 자본주의체제로 개편한다고 해서 위기해결의 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호가치 살펴본 바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다수 민중의 생존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의 향유보다는 소수의 여유로운 자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쟁과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이며, 그런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다수 민중의 생존과 삶은 희생되어야 하거나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가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삶의 위기를 진정으로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모색과정에서 더 이상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식의 패러다임을 발전시켜나가는 진지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고려대 경제학과 김수환 교수는 '뒤집어보기', '다르게 느끼기', '이러보기', '빠져나오기', '새롭게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다.

'뒤집어보기'는 주어진 조건을 주어진 대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경쟁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우리 눈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쟁이라는 게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압력이라는 구조가 탄생했다. 만

일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면서 더 이상 경쟁하기를 그만둔다면 그 순간부터는 경쟁과 분열이 아니라 연대와 협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르게 느끼기'는 상품공포와 제도언론, 권위적인 지배문화 및 사회종교 속에서 생긴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생산성 향상만이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길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믿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경영자들도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파괴성이 더욱 향상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과주의나 경쟁력지상주의때문에 이러한 속박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억지로 참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보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컨대 평화문제와 노숙산업의 노동자 일치지 문제의 서로 얽혀 있고, 생태 파괴와 공해산업 노동자의 생계도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빠져나오기'는 우리가 갇혀있고자하는 채 살아가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거대한 구조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우 나 하나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느냐고 한탄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더 이상 떠나버릴 수 없고, 또한 그 기제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면 그 기제는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계를 뜯어고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만들기'는 앞에서 말한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주체적 생명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이 힘을 바탕으로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1. 2차세계대전 후 제국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및 그 외연으로서 신식민주의라는 모습으로 약 반세기만에 걸쳐 지속되었고, 전세계에 대한 미국주도의 공동 지배가 관철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국제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집단이 형성되었다. 국제금융자본계에서도 미국은 달라져 공인된 세계통화라는 점에 기반하여 세계체제의 재무국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도적 주도권을 발휘하고 있다.

국제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의 파괴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에서 공통의 극복대상은 파스아메리카, 즉 미국의 유일지배체제이다.

중요한 것은 초국적자본의 공세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주'의 패자는 한 국가와 민족사회전반의 자주적 역량이 총체화됨으로써 실현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제국주의 세력의 정치군사적 패권과 지배의 청산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포함된다.

한해의 중앙집권화된 국민국가는 국제금융자본의 공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일, 복합해체되는 국민대중

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부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확장을 통한 주권기능의 강화라는 관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권력의 확장은 개별국가를 뛰어넘어 '반미자주 국제연대'에 기초한 연대권력의 형성과 개별국가 내에서의 자치권 확대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대항블록은 미국계 국제금융자본을 겨냥한 것인 만큼 유럽이나 아시아 등에서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간의 연대권력 형성은 반드시 국가 내부에서의 자치권 확대와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중앙집권화된 현재의 권력을 기초로 연대권력을 추구하게 된다면 권력과 대중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되어 이러한 거리는 필연적으로 권력과 대중의 유리를 날개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과 부문의 여러 대중운동을 동력으로 형성된 자치권력으로 민족국가의 중앙권력을 재조직해야 한다. 즉 연대권력에 의해 밖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치권력에 의해 안으로부터 뒷받침될 때 국제금융자본의 파괴적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금융자본의 공세에 맞서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본래적인 힘의 원천으로 복귀해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학생회 등에서 확인되듯이 민주주의는 대중의 자주성에 기초할 때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농업문제는 농민이, 지역 문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향에서의 민주주의의 심화확장은 국민대중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국민대중이 충분히 조직화되어있어야 하고 정책적 판단을 제출하고 공유할 수 있을 만큼 각성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면 다양한 수준에서의 대중운동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와 논리구조 속으로 본격적인 편입이 시작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 역시 세계적 보편과제를 받아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과제의 실현은 우리가 서 있는 민족현실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권력의 확장을 위해서 산자적으로 해체해야 할 과제는 단편된 민족을 재통합하는 것이다.

민족의 재통합을 달성하지 않는 한 동아시아 블록에 기초한 연대권력은 실현불가능하다.

또한 자치권 확대와 민족의 재통합 역시 상호존속 관계에 있다. 먼저 군사력을 중심으로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현재의 권력을 분권화시키려면 반드시 분단체제를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부터 우리의 실천과제는 참여지지를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확장과 민족의 재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자주적 패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고 회 제

(21세기경제문제연구소)

충실한 열매는 짧은 가을 햇살에 결정된다.

짧지만 강한 가을 햇살, 그것을 얼마나 자신의 당분으로 만드느냐로 좋은 열매와 좋지 않은 열매가 결정됩니다.

배움 역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만드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테니까요.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을입니다. 늘 아쉽도록 짧지만, 수많은 열매들이 익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참진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



IMF가 대학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금융(자본)으로 도입된 IMF 체제(이)에 모든 생활이 경제 '돈' 중심이다. 대학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한시기가 외대생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한갑자

IMF가 대학을 흔든다 1-생활의 중심이 '돈'이다

오늘은 밥값 걱정, 내일은 취업걱정

경제적 어려움...더 싼곳으로 몰리는 학생들

"아름마! 공짜! 하나 추가요"

요즘 학교 앞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3명이서 2가지 시켜서 함께 먹는 모습이다. IMF 체제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대학생들은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면서 정주라, 명예퇴직이 부모님들의 실직 등으로 인해 어려운 학생이 배를터에 앉았다고 있다.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유학생의 수이다. 그러나 현재 등록률은 96.7%로 작년 97%와 비교해 큰 변동은 없다. 개강하기 전까지 76.4%의 등록률로 보여 이번엔 유학생이 급증할 줄 알았다는 담당직원의 말처럼 2학기에는 유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분석과 달리 우리학교는 유학생이 예년 수준이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교육만큼은 꼭 지키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반영된 결과라 아니하리라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유학생은 집계종이로 10월 초순이 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대학으로 진학하여 잠시 '취직공로'를 피하는 학생들도 있다. 지난 6월 끝난 대입 입시결과 경쟁률은 0.58:1로 0.56:1을 보인 작년보다 비해 조금 높아졌다.

"지난 학기 부모님 회사가 부도가 나 다이스 학교를 다닐 수 있을 휴학을 했다. 방학 때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찾는 중이다"라는 서양대에 재학 중인 이우태(재고)는 "결혼했고 근태도 좋았다. 부모님 무척 화를 내셨다. 실제로 살기가 힘들다. 부모님 사정이 어려워 집에 더이상 가기가 어려워서 휴학을 하고 재입학하고 생각했다"라며 서양대에 재학 중이었던 이우태는 말한다.

이들의 말처럼 생활이 어렵다보니 학내아르바이트 공과가 나뉘면 쉽게 풀린다. "방학에 30명 정도 모집하여 이론, 관, 기술사, 후방 등 배정했다. 작년에는 인원이 차지

않아 힘들었는데 올해는 3월인데 미감이 됐다"라는 생협 학생위원장 변기영(통학·아프리카어 4)은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르바이트를 주선해주는 학생서연회에서는 "하루에 10건의 문의가 오고 그중 5~6건이 상사판다"라고 말한다. 그는 "졸업한지 2년이 되는 학생이 지금 실직해서 힘들다며 아르바이트를 문의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며 찾아오는 학생의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많이 어렵고 용돈조차 마련하기 힘든 처지라고 귀띔해준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잡사의 여유도 없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소비에서도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생식당의 이용률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서울 학생식당의 경우 IMF체제가 오기 전인 작년 3월 한달 이용학생이 72,046명인 반면 올해 3월은 94,009명이다. 이 상황은 현재에도 변함없이 있다. 용인 아문관 식당의 경우 1,400원 2,000원 음식이 판매되면 비율이 50:50에서 70:30으로 바뀌었다. 구내 이발소, 미용실 역시 학생이용률이 격감했다고 토로한다. "가게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용학생은 50%나 줄었다. 하루에 보통 30명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운영조차 못하게 될 것 같다"라며 이발소 주인 박문규씨는 말한다. 매점 역시 파자매들이 많이 줄고, 음료수도 작은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파자는 보통 단면모임(뭉치들) 등에 애용된 품목이었다. 파자와 '뭉치' 모임을 늘 단면모임 후 뭉치들이 줄고 있어 판매가 나뉘는다고 매점을 운영하는 직원도 말한다.

학교안 매점 뿐만 아니라 외대생들은 주말에도 운영하는 삼정의 주안들도 학생들의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용인배움터 앞 모전에서 호프 '정산'을 운영하는 김경희씨는 "50%의 테일을 줄 3월동안 학생들의 이용률이 예년은 8개밖에 안된다. 매출 역시 작년 대비 1/10로 줄었다"는 말과 "학생배달이 20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라

는 '한국판' 주인의 말은 이를 잘 반영해 준다. 용인배움터에서 학생들마다 매번 가득 매워졌던 예전과 달리 담구장 차에 학생들이 한 줄 타있는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을 기다리면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정들은 가격인하를 통해 학생들을 모으려 한다. 서울배움터 앞 우리집 김밥을 운영하는 이종은씨는 "1,500원 하던 김밥을 1,000원으로 내렸다. 장담이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 학생들이 돈을 아끼는 것 같아 가격인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한다. 대학생 컷트를 4,000원으로 할인한 미용실 '비리이' 주인 백영희씨는 "지금처럼 어려운 때 비싼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격인하 이유를 설명한다.

"취업관련 도서 대출이 부쩍 늘어났고 도서관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백백하다", 용인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황소라(문헌·철학 2)의 말이다. 그러나 취직은 힘들다. 이를 반영해서 서울배움터의 상황은 사뭇 대조적이다. "학기 때마다 해도 되고, 토름에 전념하던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열이 잘 하면 패싸다. 어차피 취직 안되면' 데라며 하나, 둘 포기하는 추세다."라는 도서관에서 만난 한 여학생의 말처럼 4학년 중에서 취직을 포기하는 '실망' 실태가 계속되고 있다.

어느덧 우리의 삶이 경제와 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신문은 경제면을 보는 것이 필수다. 잡지도 여유를 수 없다. 자신의 전공학문에 집중하기 보다는 경제, 취업 관련 사적에 눈길이 더 쏠리는 추세다. 이는 도서관에서 만난 한 여학생의 말처럼 4학년 중에서 취직을 포기하는 '실망' 실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승준 기자

IMF가 대학을 흔든다 2-외대실업주의의보

실업, 우리들의 이야기

순수 취업률 20%하락 ... 실업문제 토론·대책논의 활발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 졸업장을 앞두고 취직지리도 예인도 있으면 '금메달' / 취직은 왔는데 예인도 없으면 '은메달' / 취직은 안 왔는데 예인도 없으면 '동메달' / 취직지리도 예인도 없으면... '동메달'.

"한 학기를 넘겨주고 후학한 상태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취업준비도 하고 1년동안 쉬면서 어학연수도 다녀왔을 생각이" "작년까지 학교 근처에서 혼자 자취하다가 아버지 월급이 줄어 지금은 인턴 집에서 통학하고 있다." 늦은 시간 한 과방에서 만난 93, 94학번의 얘기다.

취업정보센터 앞 게시판에 보고 있는 학생들은 "취직지리를 구하려고 공고를 보고 있지만 요즘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힘들다. 취직에 대한 도파처럼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그간 누려왔던 이들과 또 경쟁하게 될 것"이라 걱정한다.

한 4학년 여학생은 "요즘은 취직지리가 없다고 '시집이 나 가지 뭐'라고 생각하는 이는 드물다. 남지도 취직이 안

되니 결혼을 미루고 남지, 여자 모두 직장 여부를 결혼조건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서울배움터 취업정보센터 신화현 취업보도주임은 "여전히 찾는 학생이 하루 50여명으로 이경에 비해 두배정도는 늘었다. 총 27개 학과의 올해 순수취업률은 작년 50.8%에서 31.5%로 크게 떨어졌다"며 "대기업 구인신청은 거의 없지만 중소기업 공정은 꾸준히 들어온다"고 밝혔다. 점차 힘들어지는 취업에 대한 대책으로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취업정보전담반을 구축하고 29일(화)에는 모의면접도 준비하고 있다.

실업태풍은 전국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지난 학기부터 '국민소득 21'에 대비한 '청년실업률'을 고민하는 대학생 모임이 만들어져 활동중이며 고려대,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청년실업률'에 대한 토론과 활동이 활발하다. 이곳에서도 실업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목) 밤에 노동당학회 '꿈'이 '실업, 우리들의 이야기'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25일(금)에는 화학생회, 학

회, 동아리, 개인들을 망라해 자유롭게 참가한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외대인 모임(가칭)'이 토론회를 가졌다.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외대인 모임'을 발족한 김경환(통학·아프리카어 4)은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노동은 인간의 권리"임을 강조했다. 실업지에서는 학생들이 정부, 재계, 노동계로 나뉘어 발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취업률은 작년 17.4%에서 올해 9.3%로 8.1%로 감소했다. 노동계를 대변한 학생은 노동자의 표준생계비가 3.4인 가족 2명 2세대원인만큼 비례 임금은 1년 60여만원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열악함과 고용불안을 제기했다. 그리고 실업과 고용불안은 경기불황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항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주장했다.

임대전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리서치 32'를 통해 취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학기 대학생을 기다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질문은 '학교차원의 대책 강구'(40.8%) '정부에 새 일자리 창출,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요구'(39.2%)등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학교 차원의 취업대책 마련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는 '취업대책 기구 마련'과 '취업정보 전신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서울 총학생회는 '취업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총학생회장 오승훈(상경·경영 4)은 "학교, 학생회와 학생들간의 의 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과마다 '취업대표'를 선정했다. 그리고 소극적인 외부진상만 연결이 아닌 학교 자체적인 취업종합진상만 구축을 학교당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나 학생계인 차원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생들은 무한경쟁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2003년 졸업생 하계월 1학년 조차 다이스 '취업의 후방'에서 마음놓고 있을 수 없다. 지금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부

생활시평

아름다운 집단주의

중학교 시절 유행했던 말이 생각난다.

"집에 도둑이 들었잖아 '도둑이야' 하면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불이야' 하면 모두 나온다"는 말.

대학생이 된 지금 그말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일이 찾아오나 같다.

대학을 말할 때 흔히들 공동체적 삶을 지칭하는 곳이라 말한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서, 학부제 상황에서 더 좋은 과로 가기 위해서 열의 진주를 이겨야 하는 경쟁논리가 팽배한 현실은 과연 대학이 그러한 곳일까? 의문이 든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해 '외론'을 갖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용인배움터 학습과 동아리 '아웃사이더' 방에 불이 났다. 정기모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해 '아웃사이더'는 타타남은 기타 2개를 제외한 모든 기구와 책이 타버렸다. 기구들의 가격은 차치하더라도(수십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정기모임, 드럼 등) 창간 초기부터 한해 사모와 그들의 일부가 타버린 악기들이 일순간 사라지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절망을 기회로 바꾸게 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아웃사이더가 속한 연맹분과(공연연을 하는 동아리들이 속한 단체) 팀장이다. 한일, 한일, 해무리 등 10개 동아리들은 교비를 털어 모은 50만원을 '아웃사이더'에 전달했다. 교비만 해부아 동아리당 한 학기에 3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할 때 대학당에서 지급되는 교비도 턱없이 부족하여 사비로 충당하거나 아르바이트, 기입 소금까지 찾는 일이 보일만한 상태. 그날 돈을 50만원이나 모은 '아웃사이더'를 도운 것이다.

연맹분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아웃사이더'와 수제민을 돕기 위해 이틀차원을 개회한 것이다. 연맹분과 소속 동아리들은 모두 참가하여 각자 특성에 맞는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했다. '아웃사이더' 역시 자신들을 도운 이들과 수제민을 위해 함께 공연했음은 물론이다.

"단연한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활동을 준비했느냐는 물음에 반한은 연맹분과장 김민정(자연·화학 3)의 모습에서 대안이 타사상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부

21세기의 대학

세상을 지배하는 열대열은 국제기반 IMF·세계은행 IMF·세계은행

이전부터 한 해 500원

세상을 지배하는 열대열은 국제기반 IMF·세계은행

이전부터 한 해 500원

“역사는 끝났다”라는 주장이 제3세계의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지구화'라는 우리 민족의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저자의 보편과 특수 사이의 긴장된 관계에 대한 저자의 화두다. 그가 이런 화두를 작년 11월부터 21세기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들을 한문단로라는 맥락 속에서 정리한 글을 이번에 선보였다. 민족, 통일 문제를 풀어야 하는 후학들에게 21세기를 맞이 발상의 전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저자의 바람이 담긴 글이 모아져있다. '우리시대 진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의 위기 극복은 가능한가' 등 '발상의 전환을 위한 20가지 테마'가 선보인다.

대기업 위기의 한반도, 그리고 그 위에 켜진 IMF와 BRD, 겹쳐져서 벼랑에 서 있는 글이라는 것을 알지한다. IMF 체제가 시작되면서 그의 본인이 관련 말은 많이 나오고 있다. 저자는(임대전) 말해 권력자(이)지만 IMF체제를 맞으며 세가지 문제의식을 던진다. 첫째, IMF가 정치권력에게 고통을 가장 심하게 받게 한 시민들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둘째, IMF에 '세계'가 어떤 권한을 주었는가 주권의 핵심인 특장국의 정책결정까지 간섭할 수 있는지는 점이다. 셋째, 특장국에 개입한 IMF가 요구하는 엄청난 회계를 정적으로 한 구조조정이 과연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력있는 경제체제로 바꾸어 줄 것인가이다.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노동계를 비롯한 예술활동을 펼치는 노동문화예술단 '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유물을 다량한 1일 출시한다. "그때는 세 길에 '정리하고 박살'이 '나사체' '정전' 등 노동자들의 현재 정서를 담은 10개의 국어 선보인다. '일터'는 "노동자들이 이 시대의 정황을 깨고 희망한 내일을 예약하는 노동이자 일터의 곳곳에 뿌려지는 희망한 삶의 노래로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고자 한다"라고 음반 발매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 구별서 사회과학집 4권 450원

28일(화) 29일(수) 30일(목) ... 10월8일(목) 10월9일(금)

신화이과대학 예술계 60000 50000 50000

신화이과대학 예술계 60000 50000 50000

신화이과대학 예술계 60000 50000 50000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대 학 생	
요일	아침	점심	저녁	백반	일품요리
월 (28일)	북아리아 (W1,500)	부대찌개 (W1,500)	돈육볶음 (W1,400)	백반 (W2,300)	소고기국밥 (W2,700)
화 (29일)	생선조림밥 (W1,400)	오징어볶음밥 (W1,300)	하이라이스 (W1,300)	백반 (W2,300)	김치볶음밥 (W2,400)
수 (30일)	사골우거지국밥 (W1,400)	생선탕 (W1,500)	참치회밥 (W1,500)	백반 (W2,300)	대구어탕 (W2,700)
목 (10/1일)	두부된장찌개 (W1,400)	소고기떡볶이밥 (W1,500)	짜장면 (W1,500)	백반 (W2,300)	적삼밥 (W2,400)
금 (10/2일)	미역국백반 (W1,400)	불고기김밥 (W1,500)		백반 (W2,300)	아이스크림 (W3,000)

용인배움터					
구분	이 문 관			후 복 관	
요일	중식1	중식2	석식	조·중식	석식
월 (28일)	바분조림밥 (W1,400)	한반스파이크 (W1,400)	짜장면 (W1,400)	한반스파이크 (W1,400)	짜장면 (W1,400)
화 (29일)	오징어볶음밥 (W1,400)	쇠고기우거지 (W1,400)	짜장면 (W1,400)	짜장면 (W1,400)	짜장면 (W1,400)
수 (30일)	아북아리아 (W1,400)	사대찌개 (W1,400)	연두부조림 (W1,400)	참치회밥 (W1,400)	참치회 (W1,400)
목 (10/1일)	부추된장찌개 (W1,400)	사대찌개 (W1,400)	소고기국밥 (W1,400)	오징어볶음 (W1,400)	우거지국밥 (W1,400)
금 (10/2일)	배우사육밥 (W1,400)	한반스파이크 (W1,400)	불고기김밥 (W1,400)	간식소배미 (W1,400)	우거지국밥 (W1,400)

● **비**일 속의 양배움터 중앙문제조직, 윤곽이 보인다

위기의 대학문화, 우리에게 맡겨라

서울...외대문에갈래협의회 발족초읽기, 용인... '위원회' 조직안착화

현재 서울, 용인 양배움터 중앙 문제조직의 성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배움터에는 '외대문에갈래협의회', 용인 배움터에는 '위원회'가 건설되어 과단위(용인은 동아리 포함)로 조직되어 있는 문제제를 관리, 지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양배움터 중앙 문제조직 건설에 즈음하여 그간의 노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자 한다.

편집자

서울 "회칙에 존재하는 조직으로 안정적인 활동보장이 필요하다" 외대문배움터 '청년' 단장 최영(사학·신방 4)군이 말하는 '외대문에갈래협의회' (갈래협의회)의 구성 이유다.

현재 서울배움터에는 노래, 풍물, 영상, 율동 갈래 조직이 존재한다. 노래와 풍물갈래는 외대문배움터 '청년'과 외대문배움터연합이 중앙조직으로 일본어과 노래과 '고루터기', 성경대 풍물과 '소스리대' 등 각과, 단대 조직이 있다. 영상과 율동은 '외대문상업' (영상단)과 '신세백'이 홀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외대문배움터를 결성하고 있는 각 갈래들이 한걸음 더 '갈래협의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원래부터 문제조직은 존재해 왔다. 그간 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학사의 방관으로 갈래협의회가 제기된 것이다"라며 '신세백' 출신의 박예준(중앙·태극 4)은 밝힌다.

갈래가 주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학생회 체계와는 다른 전문적인 분야인 갈래조직을 총학생회 문화국이 직접 담당, 관리하면서 학생회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국이 문제갈래를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문제갈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신세백' 함민(중앙·일본어 3)의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각 갈래는



'갈래협의회' 건설을 통해 학생회와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외대문' 부분에서 갈래와 학생회의 간격의 갭을 해소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갈래협의회'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정, 공간 문제에 있어 안정적인 지원이 갈래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상단 단장 하성희(사학·신방 2)장은 "영상단이 비록 기층 조직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중조직이기에 학생들에게 많은 책임을 지기 위해 갈래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갈래협의회 건설을 통해 이후 영상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각 갈래는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외대문배움터의 활성화를 현실적인 이

유로 내세우고 있다. 궁극적으로 학생중심의 문제해결을 전개하여 건전한 대학문화 건설을 통해 외대문배움터에 기여하기 위해 '갈래협의회'를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문제갈래는 '갈래협의회' 위상에 대해 총학생회 특별기수로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언권, 학대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오늘(29일) 정학대대표자회의 안건을 가져가 되던 공식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용인 "원산, 한방에 총화까지" 19대 총학생회가 내걸었던 기치로, 학생들의 의견이 즉각 학생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하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총학생회는 겨울방학 때부터 '위원회' 건설에 역점을 두었고, 현재 영상·한국

민속·문화학과·율동·정보통신 등 5개 위원회를 건설한 상태다. 각 위원회는 관련 과학이나 동아리의 모임이다. 예를 들어, 영상위원회는 4개과(이태리과, 독일어, 노어, 한문학과) 영화과와 동아리 '빛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원들이 모여 원하는 행사를 제안하거나 동아리·학외 운영상의 개선점을 논의하여 각자 본아의 전문성·대중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공연 가져다 대서 지어진 없으면 빌리는 것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지금은 영상위원회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각 학과 동아리회장 중에서 선거를 통해 뽑는데, 올해는 시행 첫 해라 간담부위가 역임한다. 일주일에 한번 각 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안을 위원장들과 총학생회장이 주관하는 전담회의에 제안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민속위원회(단체 풍물과, 동아리 '비바리', '신명소리', '합일' 등으로 구성)는 방중 풍물과 전수를 함께 받고 감습회 개최, 세간전 참가 등의 활동을 벌이며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아직까지는 참여가 적어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고(영상위원회 위원장, 사학·이태리 2)장은, "기획된 학생의 사업에 '동일'되는 형식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관을 제안하는 것"으로, 일단 기층의 과학·종아리가 본래해야 위원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한다. 또, 이전의 학생회 사업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위원회를 통해 1년 사업을 함께 구상할 수 있어 행사의 다양화·총화화를 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위원회 사업이라 아직까지 미비한 점들도 있다. 모임을 진행하기는 문제나 2학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점들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장 고화철(인문·언어 4, 재학)군은, "여자와 몇 년을 비라고고 위원회 건설을 추진한 만큼, 올해는 토대를 다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리 모습 살펴보기

〈24〉 대학생가방

INHA UNIVERSITY·HUIS-KOREA·SOOKMYEONG-YONSEI
EWHA-KYEONGCHEE·CHUNGANG-SKIU·MYONGJI ...

전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노라면 서울 안팎 대학교 가방을 메고 다니는 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서울을 인천을 오가며 가방을 주렁주렁 싣고 다니는, 과연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이름을 한글로 박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이가 한사람이라도 있는가? 아니다. 외대 영어 알파벳으로 된 이름을 달고 있다. 영어로 줄인 말이나 길게 늘어뜨린 말들, 말은 우리나라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가방은 우리나라 대학생인지 만나라 대학생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들 문제삼는 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스트포스트'이나 '정소프'라는 이름을 단 가방은 문제삼을 지라도 길게 늘어뜨린 이름을 새긴 가방을 도대체 몇사람이나 문제삼을까? 아니 문제삼고 보기는커녕 '불매'나 '자랑'이라 영어로 대학교 이름을 새긴 가방을 메고 다니지 않을까?

인하대-외국대-고려대-숙명대-연세대-이화여대-경희대-중앙대-성균관대-명지대...

이처럼 한글로 쓰면 얼마나 알아보기 좋은가. 문제 있는 물건을 안 사고 안 쓰기 운동을 벌여 줘야하고 바람직하고 알뜰한 물건을 팔도록 이끌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해보야 하는 일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 흐름이 바뀔것은 더 좋거나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것은 알잡거나 값비싼 거라는 데 문제의식을 갖을 필요가 있다.

최종규

(서양·네덜란드어 2)

서울, 3회 독일어과 학·예술제 '서로 함께' 개최

3회 독일어과 학·예술제 '서로 함께(MITENANDER)'가 29일(화), 30일(수) 이틀간 열렸다.

첫날은 풍물패 '돈돌리' 원어노래 '이인하트'(EINHITT)의 공연과 풍물전통 결혼식(婚式)이 노년극장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둘째날은 맥주축제(Bier Fest)가 오후 1시 붉은광장에서, 학의 '한결'이 마련한 심포지엄 '독일행일을 말한다'가 오후 4시 소강당(6104)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에 붉은광장에서 영화소모임 '필라베(Philbe)'가 학·예술제 준비과정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이외에도 이틀간 붉은광장에서는 쓰시키 등의 독일 전통음악공연이 있다.

한편 특별행사도 그동안 각 과반에 비하인딩 시청으로 접수한 '사랑의 꽃배달'을 30일(수) 실시한다. 기획단장 박종철(2)군은 "과학생회와 학생들간에, 학생들 서로간의 소통과 교감의 자리를 마련해 더 친밀해졌으면 한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서울, 서반어과 풍물패 마당극 '세발이' 공연

서반어과 풍물패 '천지개백'이 마당극 '세발이' (극본·연출 문정국)를 29일(화) 늦은 6시 소극장(6104)에서 공연한다. '천지개백'의 두 번째 정기공연인 '세발이'는 인간이 도우와 세발이의 삶을 통해 점차 인간이 일화문화되어가는 현재를 비교, 풍자하고 있다. "소강당 무대에서 공연하던 관공시 참여하는 마당극 형식으로 진행

한다. 또 다큐멘터리 형식 등을 도입해 낯설고 지루하다는 인식이 있는 풍물공연의 참예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연출을 맡은 문정국(2)군이 말했다. 한편, 한시간여의 '세발이' 공연 후 "동서양의 만남"을 주제로 메리 콜린스(Mary Collins, 실용영어부)의 품목연구가 선보이고 이어 북춤, 사물놀이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용인, 마스터피스 초청 연주회 개최

다음달 8일(목) 저녁에 강당 늦은 6시에 '서울과 5중주단 초청 연주회'가 열린다. 율동로 1번제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고전음악과 '비스타프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다. 모자르트의 곡인 '독인 5중주'를 위한 12개의 반주곡, '독인 5중주'를 위한 세계의 노래, '한기리 무곡인 파카스' 등이 선보인다.

"용인배움터에서 접하기 힘든 수준높은 공연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면 한다"고 화원이 장영애(인문·언어 2)은 말했다.

용인, 고전기타반 '한시' 정기공연 개최

용인배움터 고전기타반 '한시'가 오늘(29) 저녁에 강당 늦은 6시에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율동로 1번제를 맞이하는 이번 공연은 세미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정통클래식 곡도 선보인다. 이번엔 연주하는 곡은 '비유'와 '가보' '대성' 등 바하의 명곡이 대부분이다.

외대인 외대인에게

|여학생위원회 '영화상영'

여성학적 시각으로 영화보기

11대 여학생위원회(여위)는 교내 여학생들의 권익향상과 함께 사회전반 여성운동의 흐름을 있는 교양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취지에도 맞추 하고 있는 '영화상영'은 영화라는 비교적 접근하기 쉽고 확산이 큰 매체를 통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좀 더 여성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98년부터 시작된 '여성학적 시각으로 영화보기'는 페미니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성영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남성 감독들에 의해 지어졌다고 있는 여성 비하나 왜곡을 그린 영화들도 선정 상영하여 그 속에서 문제점을 찾고 올바른 여성상을 알리고 있다. 또한 상반적으로 영화를 틀기보다는 매달 여위내에서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하여 작품을 상영하여 하나의 주제에 얽나 나 영화속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 비교, 토론하기도 하는데 이제까지 여위에서 상영한 영화의 그 대표적 테마는 다음과 같다.

크로세·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성'과 '사랑', 뮤리엘의 웨딩·장미의 전쟁 속의 '결혼', 안나카리아·전사의 후예

를 비롯한 '성폭력', 그리고 안토니오 라인·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자비'에, 오로케·해피투게더 속의 '동성애' 등이 있다. 이러한 무수한 영화들 속에는 여성을 올바른 사람으로 바라본 것도 있고 여성을 몰신화시킨다거나 굴절된 시선으로 왜곡시켜 잘못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도 있다. 영화가 단순히 영화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속에서 드러나는 이미지가 사회속에서 재구성되고, 매다수의 영화가 남성의 손과 시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학적 시각으로 영화보기'는 영화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이미지를 여성학의 시각으로 재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여성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본다면 영화, 그 이상의 진실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변영옥

(중앙·베트남어 3)

비둘기철판

왕 산 글

■ 알립니다

· 카톨릭학생회에서 개강바사를 드렸습니다.
교수님은 6분 최인규 바오르 신부님 학생30여명 (카톨릭학생회)

· 마스터피스(고전음악반) 초청 연주회
때: 10월 8일(목) 늦은 6시
곳: 자매강당

· 제 3기 사랑 많은 자(자원봉사자 교육)
본 모임은 '98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강의를 통해 올바른 자원봉사자를 만드는 사전교육인 사랑 많은 자(자원봉사자)입니다.

제 3기 교육과 더불어 같이 개강합니다.
(장애우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뇌성마비, 정신지체, 자폐, 시각, 청각장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과 부모님들을 주축으로 이 모임을 함께 일구기를 원하는 장애우와 비장애우들이 모여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때: 10월 9일(금), 10일(토), 16일(금), 17일(토)
4회(장애우들과 동반)
곳: 용인 중앙 감리교회 3층
주최: 장애우들 마음 준비 협회
대상: 용인지역의 교회 기독교 청년 및 성도 (장애우들과 동반 협회)

이 문 별

■ 알립니다

· 서어과 풍물패 천지개백 제2회 정기공연

이한국마당 '세발이'전
때: 9월 29일(화) 늦은 6시
곳: 대학원강당 6104 (소극장)

(서어과 풍물패)

· '취업연령 제한 폐지, 미취업 대졸자 구직활동비 지급, 실질임금 삭감'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명운동은 28일(월)~30일(수)까지 붉은 광장에서 진행합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고민하는 외대인 모임)

· 9월 30일(수) 대학원-학문간 서열화 정책 폐지와 교육의 공정화 정책,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총괄기가 있습니다. 주체는 전국학생 연대의회입니다. 모여서 함께 갑시다. 모든 투쟁을 총괄기로!!
(민중연대 실천단)

■ 축하합니다

· 서로의 눈이 마주친지 2924일 만에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불어과 화학반 권오준군과 같은 학번 유혜경양이 11월 7일(토) 늦은 4시 30분에 하계동에 위치한 건영 윤바리다 박희365호 "내 사랑(전주출)"에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거든요. 두 사람을 아시는 분을 많이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예비 신랑 배에 멋진 축하인사 부탁드립니다. 문의: (015-8326-8164)

· 해문의 위명동이 바하에(22일), 분위리관 향원(24일), 한계시절 신종희(26일), 통학한 회장 김관중(29일) 구사모(구원)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해문문화회)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112, 4580



김정일 시대의 북한

북한은 지난 9월 5일 김정일 총비서가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4년남게 지속되었던 '유신헌법' 체제를 끝내고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로 들어섰다. 본보에서는 '김정일 시대' 김정일 총비서가 돌아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난을 중심으로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전망과 경제난 극복전략을 알아보고자 2회에 걸쳐 통일연구소 한호석 소장의 글을 실는다. 지난 호(721호)에 이어 두 번째 글을 이번 호(722호)에 실는다.

“난관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제3세계 나라에 없는 '독자적 주체혁명노선' 당-대중-인민군대의 혈연적 연계 강화로 난관 극복

4. 북한의 이른바 '주체혁명노선'

북한은 조선로동당이 영도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기본성격은 김일성주의 혁명론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을 추진하는 '주체혁명의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조직이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조선로동당이 북한을 영도하는 한, 북한의 '주체혁명노선'을 '독'시 로 삼고 이를 추구하게 된다. '사회주의의 함의' 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중략)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국가성격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제1조)이며 "혁명적인 국가"(제2조)라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난을 강조하는 편향된 인식에 기울어져 있는 남한과 서방세계의 분석가, 연구자들은 북한이 '주체혁명노선'을 추구하는 '혁명적 국가'라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북한을 비혁명적, 반사회주의적이나 제3세계 나라들과 동일시하는 잘못에 빠졌다. 북한 인식론에서 증시해야 할 문제는 북한이 제3세계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주체혁명노선'을 추구하는 국가적 의지와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나라로 남아있는 중국, 베트남, 쿠바와 구별되는 중대한 차이점이다. 이 세 나라는 '독자적인' 혁명노선이 없을 뿐더러, 국가의 혁명적 의지와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

남한과 서방세계는 일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좌절된 뒤에도 북한이 '주체혁명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평가하면서, '시대착오적인 혁명노선'은 머지않아 좌절하고 말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외부의 평가와 예견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고 있다.

소비에트형 일국 사회주의 혁명노선이 좌절하고, 중국과 베트남이 친서방적 외교노선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해 친화력을 지닌 개발노선으로 기울어진 뒤에, 북한의 외적 조건이 크게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북한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적 조건이 불리해진다고 해서, 북한의 '주체혁명노선'이 좌절하고 말 것이라는 견해는 북한의 주체적 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속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혁명노선'은 유리한 환경에서 추구해온 것이 아니었으며,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간고한 투쟁을 벌였던 역사적 경험에 근

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의하면, '주체혁명노선'이란 인민과 행복에 깃든 편안함이 아니라 난관과 역경을 뚫고 나간 투쟁이며, 이러한 혁명투쟁은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이어져 왔다고 한다.

북한이 만일 소비에트형 사회주의의 노선처럼 사회주의의 제도를 선택했기만 하면 사회주의체제가 자동적으로 발전되리라고 믿었던 이른바 '사회주의 자동발전론'에 도취하여 체제 내부에서 일어난 혁명적 의식의 이완현상을 내버려 두었거나, 아니면 중국형 사회주의의 노선처럼 '점점(점점)'의 좌우편향에 기울어지는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거나, 아니면 다른 제3세계 나라들처럼 혁명노선이 없어 반미성향만을 지닌 나라였다면, 북한은 경제난의 파고를 건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60년대 초부터 소련공

북한이 경제난의 파고 속에서 '주체혁명노선'을 변형없이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1993년부터 1994년에 있었던 '백화기'에서 미국에게 맞선 전면대결을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미국의 공세에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오늘날의 상황은 난관과 시련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전면적 대결전술이든 아니면 유화적 협상전술이든 간에 그에 맞서는 것은 난관과 시련이다.

김정일 총비서는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오늘 미래국주의자들은 반사회주의 책동의 예봉을 우리 나라에 떨리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은 "정치군사적 압력" "경제적 봉쇄책동" 그리고 "자유화 바람"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주의의 좌절된 것으로 하여 더욱 오만해진 세계 제국

으로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력으로 만물이 위'한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은 승용자를 망탕 리용하는 현상에 대하여 문제를 세운 다음 당조직들에서 세도와 권료주의, 귀족형세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간부들이 적지 않게 교양되고 각성"되었다고 한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당 간부들을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에 한달동안 파견하여 "지휘관 현실체험"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당 간부들이 "생산현장에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같이 일하고 기쁨낼새, 흠뻑새를 맡으면서 조직정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혁명화하고 군중사업방법과 경제관리방법을 배우며" "해당 단위의 사업을 추켜세우고 군중을 교양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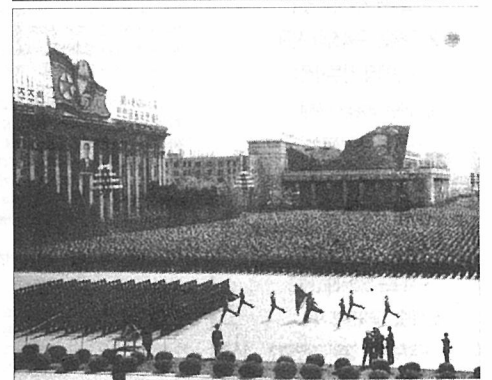
김정일 총비서는 당간부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제시한 3단계 대책은 '사상투쟁을 통한 혁명'→ '힘든 노동'을 통한 단련 → 법적 제재'다.

둘째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총비서가 매일 아침 신문 '조선인민군'을 읽은 다음에 '로동신문'을 읽는다는 사실은 그가 군사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군사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나라의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미제와 직접 대치되어 있고 적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강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군사를 더욱 중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총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 현실인식에서 군사신중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군사신중론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자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열째도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 말과 '적들이 앞머리에 경우에는 파이어 투쟁을 벌일 작으로 하여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도든지 미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말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셋째로,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현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총비서는 "아무리 발전된 경제력과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정권이 라고 하여도 사회정치적 자반이 혼란하지 못하면 생활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그 존재를



북한은 미국의 공세에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오늘날의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로동당 혁명강화 △군사력 강화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유지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사회제급적 기초가 튼튼하고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권은 감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정권은 쇠퇴를 막"한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사회정치적 기반이란 "수령, 당, 대중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정권이 의거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기반의 참다운 면"이라고 한다.

이것은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민간통일운동은 보수언론들의 '북한의 개방·개혁 불가피론'이라는 허구적 인식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북한의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토대위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21세기의 전략과 전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호석

(통일연구소(구 미주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약력

- 1955년 서울 출생
- 1981년 미 유학
- 1984년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1990년 이후 북미에서 민족민주운동 참여, 집권 활동
- 1995년 이후 미주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역임, 현 통일학 연구소 소장
- 1994년 이후 북미주 조국통일 동포회의 집행위원

힘 모아 나라사랑 뜻 모아 겨레사랑



창업자 유일한 박사
1971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다.

父傳女傳



딸 유재라 여사

1991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다.

2대에 걸친 재산의 사회환원- 유한의 정신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유한의 기업정신

유한은 기업이윤의 40%를 사회에 환원하여 각종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소년소년 가정돌기 등 공익사업을 위해 사회환원으로써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지켜온 유한양행 72년

'좋은 약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창업 이념은 끊임 없는 우수의약품의 개발로 이어져 버려오는 신용의 상징이 되었으며 각종 치료제를 대외로 수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유한의 연구개발

새로운 건강질환치료제(YH-439)와 항암제 약제(YH-1885), 그리고 에이즈 치료원료를 개발하는 등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 유한의 새로운 신약개발은 건강한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신용의 상징-버들표
유한양행

● **반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에 대한 또다른 단상

순결운동! 여성을 억압한다

현 위기 극복대안, 가정·순결 강조... 순진한 발상

720호 외대학보에 실린 한 학생의 '88 국제 순결대행진에 다녀서'라는 글을 읽었다. 미리 밝혀두려니 나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순결대행진에 참가한 학생을 비난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를 원할 뿐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라는 개념이 문화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고 관련성이 갖지 못하며,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연상시키는, 때때로 감히 지양할

순결 또는 순수한 사람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순결이 무엇이나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지 만 순결 대행진이 개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현상 및 현상(One Love One Life One Man One Wife)은 그것을 유발하는 사회적 원인과 동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현상들의 모습을 극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의 강력한 비메타포적 효과를 낳는다. 순결 대행진은 분명 비메타포적 성문화의 지평을 일컫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례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굳건히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다. 그런 건전(?) 또는 모순이 필자는 무슨 때문에 시비(?)를 걸고자 하는가?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족 및 성문화와 관련하여 하나의 현상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정상적'이다.

순결 운동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사 람을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절차를 거쳐 혼인

관계가 된 후에 성행위를 하고 합가정을 이루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성적 관계가 아닌 사립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성 관계 같은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도덕의 환날에 의해 단죄된다. 이렇게 특정한 형태만을 사회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담론의 생산과 유통, 축적, 분배를 통해 끊임없이 재강화되어 개인적 다양성 및 상상력, 비현실적 고갈 시킨 채 권력효과를 달성한다. 그리고 그러한 메커니즘은 사회의 제도 및 시스템으로 불려진다. 과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진 후에 맺는 성관계만이 순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아니 여러의 관계맺음이 행동이 가지는 성격 및 정성들을 판단할 때 '순결'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작동할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 어느 것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느냐라던가, 여러 사람과 만연한 성관계를 맺어도 좋다는 거나고 비물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순결운동이 표방하는 것이나 정성적이며 좋은 일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으며, 다른 형태들에 대해 도덕이나 윤리의 이름으로 비판할 근거도 없다는 사실일 뿐이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순결운동과 그것의 구호가 낳고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측면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순결'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는가를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얘기나가 관두도록 하자(720호에서도 성문화로 순결을 잊었다)와 자신한 행동에 대해 '요즘 시대에 보지못한 것'이라고 표현한 방송기자의 발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럼 왜 하필이면 1998년 한국사회

에서 다시금 '순결'이 강조되는가?

'사회전반의 모순과 갈등이 IMF체제를 계기로 일시에 폭발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것-이미도 가족을 뜻하는 것 같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과,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산다'는 말은 마치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퇴폐적 성문화가 만연하여 IMF라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부터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로 불린다. 전지구적 자본이 자기 모순으로 인해 발생시킨 위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일반 민중이 겪어내야 하는 고통을 가족의 사랑, 가정의 재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순진한 발상이다. 뭇세 불합치까지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독특한 사람들 중에 이런 '순진한' 발상을 유포시키는 사람이 많다. 고통을 함께 나누자면서 맨 먼저 여성을 해고하고 자본과 그자 방관하던 정부, 기업으로 돌아가서 친 남편의 발을 씻어주자라고 목소리를 높인 언론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성에게 양방향 회색을 강요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만든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우리 미래유망가가 성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애와 인간애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더욱 많은데, 동시대, 유독 아버지의 권위와 여성의 복종을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인지는 모르겠다.

순결대행진과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헤드라인이 그래서 더욱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너무 순수하지 못한 것일까.

김요민정

(월남대학원·신방 2)

사진수필

- △ 자살, 살인, 아사-동사까지, IMF실업자들의 죽음이다.
- △ 보행자를 타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 끝을 잡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실업자이다.
- △ 이런 죽음들을 생각하고 또 다른 아들의 손가락을 자를 수 밖에 없는 미망의 실업자 백만이 살고 있다.
- △ 실업자에 대한 기본 생존권 보장자 없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실 이름은 누구를 위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인가.

-열등 노동자의 거리에서-

임승희 기자

● **문화비평** -또다른 문화권력: 베스트셀러

'문화권력', 참된 문화 설 자리 없앤다

자본의 문화침투... 문화의 빈곤화

'베스트셀러'란 우리말로 '잘 팔리는 책'이다. 지금 시대는 순쉽게 책을 사 읽을 수 있는 때라 하여 100만 넘 넘게 팔리는 책도 자주 나온다. 그러함에도 지금 시대에 책 한 권 번번하게 사 읽기 어려운 이가 적지 않다. 문화를 골고루 나눠 누릴 수 없다는 하나 문화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이는 그대도이며 '잘 팔리는 책'이 늘어나며 이에 따른 '문화권력' 독점 열개도 굳어져 간다.

'문화'의 예서는 주마다 장정일제기 만나보아 그 이야기를 간추려 담는 자리가 있다. 이점엔 출판사에서 일했던 이를 만났다. 장정일제는 그의 예에 '당신이 낸 책 가운데 재판이나 셋째 판을 낸 책은 자주 있으나 '베스트셀러'라 하여 잘 팔린 책은 없다'고 말하자 그는 베스트셀러는 문화를 독점하는 존재라며 한 가지 책이 책 자리를 독점하며 다른 책이 설 자리를 빼앗긴다고 말했다.

그렇다. 유희준류 문화당사자 판을 치며 다른 이야기를 담은 책은 책방에서 거의 사라져 갔다. 그리하여 깊이있게 문화를 다루는 책이 어렵다 하여 꺼리고 싶어 없으며 재미만 주는 책이 판을 친다. 그는 베스트셀러 한 달들이 하나같이 '잘 팔리는 책'이 주는 '문화독점'에 대해 패했다.

장권이 바뀌며 세 방송사에서 앞다투어 내보내던 '가요순위 프로그램'을 하나 같이 없앴다. 그러나 지금은 바뀐다 다시 내보내다. 바로 이 '가요순위 프로그램'도 또 다른 '문화권력'으로 '노래 자자'를 독점하는 존재를 부각한다. 이곳에서 으뜸을 먹으려면 어떤 여학생에게 인기를 끌거나 잘 팔려야 한다. 그렇지 못한 노래는 아예 가지지 못한다. 더불어 민중가요나 흥취처럼 아직까지 특정한 곳에서 잘 나가는 노래도 아예에선 멀어 버렸다.

'노래순위 프로그램'은 텔레비전만 매체를 거쳐 '하나같이' 작각까지 펼쳐진 독점은 노래 판을 놓고 이를 파고들었다. 그리하여 자각의 다른 노래라든지 우리 전통을 살리고 현대성을 녹여낸 노래를 가다듬는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오로지 '대중가요' 하나만 노래다. 이는 문화예술회권만 '문화권력' 독점 무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여기서 '가곡'이나 '오페라'나 '성악'만이 노래로 대접된다. '대중노래'조차 이곳에선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국악'을 들은다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우리 음악은 '국악'으로 알잡음에 온통 박제화된 노래만을 경이로 타듯 내보내다.

이 모든 '문화권력'은 문화를 지마는 놀인 자리에서 독점에 버린다. 그리하여 제대로 타락한 노래나 새롭게 내지는 노래는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판에 어느 노래나 노래가 이 땅에 설 수 있겠는가. '노래 순위 프로그램'에서는 음악성을 따지지 않는다. 노랫말도 따지지 않는다. 가락이 제대로 되었는지조차 따지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이가 부르고 얼마나 많은 여학생이 판을 사느냐에 따라 가를한다.

노래도 대중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중성이 100% 모두를 지리해야 좋은가? '노래순위 프로그램'은 바로 대중성이 100%를 지리하되 보기가. 이렇게 해서는 노래다운 노래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에 박은 노래만 파고들었다. 노래를 다루고 이를 듣는 자 체를 바꿨다. 판이 있다. 이것도 아니다. 여제 대학교만이 '인더그라운드'를 낳는 곳 이 되었는가? 이 또한 '인더그라운드'라는 이름 아래 또 달리 '문화권력'을 낳는 곳일 뿐이다.

사실 지금과 같은 처지에서 '잘 팔리는 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동네 책방이 사라지고 책 매점집만이 늘어나는 때, 커다란 책방만이 힘을 불리는 판에 이점들은 장사속에 '잘 팔리는 책'을 출판사와 어떤 매체와 뒤엉켜 만들어 낸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네 책방에서 우리에게 알맞은 책을 고르는 일을 하지 못한다. 동네 책방마저 '무슨 책 사러 왔수' 하며 '그런 책은 없어요'하고 통째버리게 한다. 도서관에서는 온통 '잘 팔리는' 소설이나 가벼운 문화 담론 이야기를 담은 책만을 갖출 뿐이다. 온통 '문화권력' 누린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율타리 안에서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을까? 아니, 자기 생각이란 존재는 도대체 있거나 없거나?



유희준류 문화당사자 판을 치며 다른 이야기를 담은 책은 책방에서 거의 사라져 갔다. 그리하여 깊이있게 문화를 다루는 책은 어렵다 하여 꺼리고 싶어 없으며 재미만 주는 책이 판을 친다.

'스테디셀러'란 말을 쓰는 이도 있다. 우리말로 '꾸준히 팔리는 책'이다. 또는 '읽을 만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꾸준히 팔린다는 말은 '읽을 만한 글씨'가 있다는 소리 아닌가. 이 '읽을 만한 책'을 엮어내고 이를 누릴 만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동네 책방과 헌책방과 제대로 갖춘 마을 도서관이다. 이러한 자리를 거쳐야 책 문화는 제대로 골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래는? 노래 또한 이처럼 어디서든 제대로 누릴만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 커다란 공연장도 아니며 대중성만을 놓고 따지는 자리도 아니다. 명동성당 앞만이 아니라 이 나라 곳곳에서 이처럼 노래를 아무 개리낌없이 부르고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책만이 가진 문제도 아니고 노래만이 가진 문제도 아니다. 이 나라에 발을 디디고 있는 온갖 사회·문화·과학·예술이 얹히고 살인 일이다. 모든 분야에서 '권력'이 있으며 이는 자기만이 으뜸이라는 '독점열개'를 갖고 있다.

이를 깨부수거나 뜯어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지마는 애써 내놓는 참다운 책이나 노래가 설 자리가 있어야 한다. 예를 쓰고 가를 써도 설 자리가 없다면 어느 누가 책을 써가려 가를 쓰겠는가.

최중규

(서양·네덜란드 2)

비밀집합

721호 2면 연호에 있는 유럽문화 기사중 하에서
① 두번째 상영 영화들
카메라를 든 사·40에서 '쇼와 1'로
② 조판원(월남대 문헌대학 박사)로 옮겼다.

정기학생총회 광고

익대인 둘만 모여도 얘기거리가 되는
문제들을 정기학생총회에서
7천 학우들과 함께 얘기해 봅시다.
이번 정기학생총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생김
동북금 인상을 만들 수 있는 대학문화의
왕산의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7천 왕산인 여러분!
우리 모두 참석하여
더 아름다운 외대를 만들어 봅시다.
때 : 30일(수)
곳 : 노천극장

집단지의 꿈 백만과 함께
애국외대 통일왕산 19대 왕학생회

칠천가지 빛깔의 꿈을 모아 아름다운 왕산을